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부산 삼광사 매월 1일 법회날

알뜰장터 열린다

절앞 2백여m에 80여 난전 '성시'
불교·생활용품-먹거리등 없는게 없다
부처님법 배우러 오가는 2만여 불자
법회도 보고 값싸고 좋은물건도 사고
20여년전 동래 광명사 시절부터 장 서

"아지매, 반찬 좀 사소."
"이 장아찌 얼마라예?"
"요거 촌에서 농사지어 직접 담은 거라예. 5천원에 한 통 들여 가소."

법회 가는 길에 장이 선다. 그래서 법회도 보고 장도 보는 즐거움이 있다.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천태종 총무원 규정부장) 앞길은 정기법회가 열리는 매월 1일마다 장터가 된다. 절에 이르는 2백여미터의 길에는 아침 일찍부터 장사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80여 난전이 순식간에 들어서고 손님을 부르는 소리, 값을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 해진다. 찹쌀떡, 김치, 장아찌, 식혜 등 먹거리에서 당귀, 영지 같은 약재와 염주, 법복, 개량한복, 신발, 가방, 태극기, 악세사리 등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면 그야말로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종물의 거리다. 울릉도 호박엿을 파는 입담 좋은 아저씨의 능숙한 가위질과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떡판을 펼쳐 놓은 아주머니의 맛배기 공세가 시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낸다.

법회날마다 하루 2만명이 넘는 불자들이 오가는 삼광사 앞길에 장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삼광사 앞길의 장터가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의 삼광사가 개원하기전, 그러니까 동래 광명사 시절부터 법회날 절 앞에서는 장이 서기 시작했다. 염주나 법복같은 불교용품들을 파는 난전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장터가 90년 삼광사가 개원된 후부터 본격적인 종물거리로 발전된 것이다.

"처음부터 염주장사로 나선것이 아니야. 절에 가는 것이 좋아 절에 다니다보니 절 앞길에서 뭔가를 팔아 용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지. 벌써 15년이나 됐으니 용돈 벌려고 장사한다는 말은 거짓말 같이 들리게 됐어."

콤팩한 가방에 각종 염주와 향통 법문테이프를 담아와 돗자리위에 전을 펼치는 김수환(66세) 할아버지는 삼광사 앞길 장터의 1세대인 셈이다. 삼광사 다니는 신도 가운데 할아버지께 염주 산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아따, 기자님이 남의 장사 내력까지 물어서 뭣 할라고…"라며 대답을 피했다. 염주 파는 것이 장터에 나오는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이 들끓는 장터, 그것도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오가는 사람들이 부대끼는 길에서 한나무 염주를 놓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말을 조용히 들려 주었다.

'법복보살님'으로 통하는 황귀덕(61세) 할머니도 삼광사 장터의 원조임을 자부한다. "나 절 앞에서 옷 판 세월이 20년이여. 동래 광명사 시절에는 나 말고는 옷파는 이들이 없어 재미도 좀 봤지. 요새는 웬만한 신심 아니면 법복을 안 입는가봐. 힘들어…." IMF의 파도는 할머니도 비켜가지 않는 것인가. 한벌 팔면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건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라며 푸짐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법회를 마치고 내려오다 반찬거리를 샀다는 김기화(42세)보살은 "절 앞에서 장을 보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값도 다른 시장보다 싸고 물건도 좋아요. 법회날은 일주일치 반찬을 여기서 삽니다"라며 장터를 자랑했다. 삼광사 앞 장터에서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시중보다 값도 싸고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물건을 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알뜰장터로 제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터는 절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문화현장이다. 상인이 있고 사고 파는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음으로 형성된 장터이면서 신도들에게는 알뜰살림의 지혜를 배우는 도량이기도 한 것이다.

삼광사 신도들은 절 앞길의 장터를 사랑한다. 장보기가 편리해서뿐아니라 그곳에서 오가며 만나는 신도들과 나누는 정담까지 사람사는 냄새를 그윽히 풍겨주기 때문이다.

매달 양력 초하루법회에 맞춰 섰다가 파장하는 삼광사 앞길의 장터는 이 시대 불교계의 새로운 풍속도이다. 그것은 절의 문화·생활적인 역할이다. 그것은 절이라는 공간의 역할이다. 절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발원도 하고, 기도하는 절이라는 공간은 생활속에 파고들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자. 은행도 있고 상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는 절. 그래서 절과 생활 영역이 다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진솔한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질펀한 삶의 현장을 떠나 어디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말이다.

삼광사 앞길의 흥성한 장터는 이런 상상의 꼬리를 남긴채 지는 해를 따라 파장을 서두르고 있다.

글=천미희 사진=고영배 기자

◇매달 1일 삼광사 법회때마다 절 앞 200m의 길은 80여 난전이 펼쳐져 시끌벅적한 장터가 된다.

◇삼광사 앞길에 서는 옷·악재·불교용품·먹거리 등 다양한 물건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뷰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

"풋풋한 정 주고받는 삶의 현장"

"누가 주도해서 장이 선 것은 아닙니다. 동래 광명사 시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난전이 삼광사로 옮긴후 본격적인 장터를 이룬 것입니다. 상인들끼리 질서도 잘 지키고 나쁜 물건을 속여 팔지도 않지요. 절 앞에서 장사한다는 것을 그들은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절 앞 장터는 삼광사의 멋이 됐습니다."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은 절 앞의 장터가 이제 삼광사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풍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은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의 문화와 정신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장터가 형성되는 것도 불자들의 생활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우리절 신도들은 장터를 통해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풋풋한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시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을 절 앞길 장터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신도들의 얼굴을 익혀가며 단골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시장에 비해 쉽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장터는 절과 신도와 상인들이 함께 가꾸어 가는 독특한 삶의 현장인 셈입니다."

스님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터인만큼 절과 행정당국 그리고 상인들이 합심해 서울의 인사동에 버금가는 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터를 가꿔가겠다며 "불심 가득한 이 장터가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

한국 최대 백옥 와불 이운식

용두골 산자락에 안개 걷히고
구만산 바라보며 피어난 연화장에
그 위용 당당히도 우뚝 솟은 자명사
미소한 연화미소 슬그머니 나투시고
한손히도 누워 계신 백옥 와불님!

주지 효성스님

2천5백년전부터 태국 승왕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될 적멸보궁이 강원도 홍천 구만산에 건립되었습니다.

적멸보궁 자명사(慈明寺)는 4천여평의 대지에 1차로, 지상2층 지하1층의 연건평 3백50평규모의 무설전과 요사채를 낙성하고 오는 7월5일 개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또한 개원법회에 맞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국내 최대 규모(길이 3m·무게 4t)의 백옥 와불(臥佛) 이운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친견하는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하게 맑아지는 법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백옥 와불은 태국에서 조성돼, 대만 故성인대사(聖印·前 대만 만불사주지)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한국에 모셔져 이번에 자광사에 봉안되는 것입니다.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에 전국의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 진신사리 및 백옥 와불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혜법(慧法)이 충만하시길 삼가 기원합니다.

구만산 적멸보궁 자명사 주지 효성 합장

◀무설전에 모신 국내 최대 백옥 와불 후불탱화는 10대 제자상으로 조성됐다

▼홍천 구만산에 조성된 적멸보궁 자명사 전경

· 대 법 회 안 내 ·

■종 명 :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 華대종사
대한불교 총화종 前종정 冶鶴대종사
대만 만불사 부주지 上常노사
(대만성 자명상공高校 간사장)

■일 시 : 1998년 7월5일(음 윤5월12일) 오전 11시

■장 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산84
적멸보궁 자명사 ☎(0366)434-1571/435-1571

◆교 통 편 : 경춘선 강촌역에서 말봉산방향으로 15분거리
(강촌역에서 자명사까 셔틀버스가 운행합니다.)
· 서울지역 출발/용마산 용암사 앞에서 행사당일 오전 7시 출발합니다.
(2호선 구의역에서 마을버스를 타시면 절앞까지 옵니다)

용암사 ☎(02)435-1571

* 자명사는 개원을 맞아 만등으로 무명을 밝힙니다. 만등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